

HONG KONG LINER



홍콩혁신기술장관, 한국 비즈니스 관계자에 홍콩의 최신 동향과 혁신기술 분야 기회를 소개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언 중인 연사들과 진행자. 알프레드 시 홍콩혁신기술장관(좌측 상단), 이수재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좌측 하단), 차인혁 CJ 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우측 상단),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 ECN 베이징 디렉터(우측 하단).

알프레드 시 홍콩혁신기술장관은 8월 18일 개최된 ‘혁신 클러스터 – 아시아의 신기술과 스마트 경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콩의 최신 동향 및 혁신기술 분야 기회에 대해 소개하였다. 시 장관은 혁신과 기술 분야 생태계 향상을 위해 홍콩 정부가 지난 4년간 미화 140억달러가 넘는 투자를 진행해왔다는 점과 함께 해당 분야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의 노력은 국제적으로 높은 찬사를 받아왔다. 홍콩은 IMD가 2020년 12월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랭킹 5위에 오르며 8위에서 세계단 상승하였다. 또한 마스터카드와 미국의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이 공동 발표한 디지털 인텔리전스 인덱스 리포트에 의하면 홍콩은 한국과 11개의 다른 경제체와 더불어 혁신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꼽혔다”

또한 시 장관은 대만(광둥-홍콩-마카오) 지역에서 홍콩의 전략적 위치에 기인한 방대한 기회들과 중국 14차 5개년 계획 하에 홍콩을 국제적인 I&T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인민정부의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홍콩과 손을 잡고 전례없는 기회를 활용하기를 장려했다.

아울러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닌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홍콩의 스타트업 수는 6년만에 3배가 증가한 3,400개(2020년 기준)로, 이 중 유니콘 기업이 11개 있으며 홍콩에서 창업을 한 창업자의 4분의 1 가량이 홍콩 이외 출신이다. 시 장관은 홍콩이 유망한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신과 무관하게 테크 스타트업이 홍콩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있음을 이러한 국제적인 프로필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홍콩 거주자와 홍콩 비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탑승 및 격리 요건

홍콩 내 감염 상황이 안정되고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새로운 탑승 및 격리 요건 하에 홍콩 비거주자도 홍콩 입경을 허용하였다. 2021년 8월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거주자 및 홍콩 비거주자는 홍콩 도착일 및 도착일 14일 이내에 B그룹 (중위험 지역, 대한민국 해당) 지역에 머물렀던 경우 홍콩 입경이 가능하며 격리 지정 호텔에서 14일의 격리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경시 필요한 요건의 최신 정보는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웹사이트를 참고 -
(한국어) <https://www.hketoty.gov.hk/korea/kr/>
(영어) <https://www.hketoty.gov.hk/korea/en/>

탑승, 격리 요건 및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 -
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도쿄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새 역사 쓴 홍콩 선수단



(사진 왼쪽부터) 청가롱 선수, 시오반 호히 선수, 라우모성(그레이스 라우) 선수, 리와이즈(사라 리) 선수, 두호이캄, 리호칭 선수, 수와이암 미니(미니 수) 사진출처: 중국홍콩체육협회 및 올림픽위원회

홍콩은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총 13개 종목 46명의 선수가 출전한 홍콩선수단은 다음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 청가롱 선수의 금메달 1개 (남자 펜싱 플뢰레 개인전)
- 시오반 호히 선수의 은메달 2개 (여자 수영 200m, 100m 자유형) *단일 올림픽 대회에서 2개 메달 획득
- 리와이즈(사라 리) 선수의 동메달 1개 (여자 사이클 트랙 스프린트)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획득 (첫 동메달은 런던 올림픽 케이린 경기)
- 두호이캄, 수와이암 미니(미니 수), 리호칭 선수의 동메달 1개 (여자 탁구 단체전)
- 라우모성(그레이스 라우) 선수의 동메달 1개 (여자 가라테 가타)

홍콩 스포츠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계획 발표



도쿄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에 발맞춰 지난 8월 10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 수백만 홍콩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계획을 공개하였다. 담긴 내용에는 홍콩 선수들이 새로 짓는 홍콩체육학원(Hong Kong Sports Institute) 훈련시설을 2024년 차기 올림픽 개최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 홍콩달러 기금 조성이 포함되었다. 이 기금은 스포츠 과학 및 의학 연구 시행, 훈련 장비 개선, 훈련시설 내 추가 장비 구매 등 장애를 포함한 엘리트 운동선수에게 도움을 주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홍콩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원 중앙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 홍콩체육학원 훈련시설 확장에 9억 홍콩달러 (미화 1억 2,700만 달러) 지원
- 선수 기술력 향상에 3억 홍콩달러 (미화 3,850만 달러) 지원
- 학교체육 발전 강화
- 전업 선수 대상 고등교육 기회 제공
- 프로 선수 기용 및 스포츠 산업 발전 홍보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홍콩

자유롭고 개방적인 홍콩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불안,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 코로나-19 대유행 등 홍콩에 전례 없는 여러 도전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도 홍콩의 현 상황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최근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홍콩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제정 이후 사회질서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업 활동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즈니스 신뢰도 회복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현

지 및 외국인 거주자와 기업은 기본법과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 규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측면에서도 홍콩은 안전한 곳입니다.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 통제 조치를 통해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엄격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홍콩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감염 상황을 잘 관리했습니다. 지역 감염은 크게 억제되어 6월 초 이후 지역 감염 사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9월까지 홍콩 시민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비거주자는 2021년 8월 9일부터 홍콩행 항공편 탑승일/홍콩 도착일 및 도착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렀던 경우 격리 지정 호텔에서 14일의 의무 격리 조건 하에 홍콩 입경이 가능합니다.

홍콩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기에 현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 재개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화 약 390억 달러를 투입하여 기업 지원, 실업 방지, 시민 생활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홍콩 경제가 2021년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성장을 기록하고 4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인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3.5%에서 5.5%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였던 7.2%에서 1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홍콩의 금융시장은 회복을 넘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IPO)자금조달액 순위에서 홍콩은 지난 12년 중 7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홍콩에 유입된 IPO



하각산 (Joyce Ho)
홍콩경제무역대표부(도쿄)
수석대표

자금은 미화 640억 달러를 돌파하며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홍콩달러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홍콩의 총 예금액은 미화 1조 9,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홍콩의 운용 순자산액도 2019년도 말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기본법에 따라 보장되는 홍콩의 독자적인 강점은 견고하며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국양제', 법의 지배, 독립된 사법, 정보/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영

가 포함됩니다. 9,000개의 해외 및 중국 본토의 기업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44%가 홍콩을 지역 본부 또는 지역 사무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홍콩에 대한 이들 기업의 신뢰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홍콩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콩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유지할 것임을 재천명하며, 한국 기업이 홍콩과 협력하여 총 인구 8,600만명, 미화 약 1조 7천억 달러의 GDP가 발생하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의 막대한 비즈니스 잠재력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위상은 올해 3월에 중국 본토에서 발표된 2021-2025년 국가 발전 계획(제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본토는 홍콩을 국제 금융, 무역 및 교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 혁신 및 기술, 국제 항공 허브와 함께 동서양이 만나는 국제 예술 및 문화 교류 허브이자 역내 지적 재산권 거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홍콩에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홍콩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 기업은 중국 본토 시장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홍콩의 낮고 간단한 세제 및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홍콩은 아시아 금융 위기 및 세계 금융 위기부터 사스와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견뎌왔으며, 역사는 항상 홍콩이 더 힘차게 다시 도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도 홍콩과 한국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본토의 거대한 비즈니스 잠재력을 활용하고 양쪽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홍콩 MTR 튜먼 - 마온산선 완전 개통

지난 6월 27일 새로 문을 연 MTR 역 두 곳(성왕토이 역, 토과완 역)의 영업 시작으로 홍콩 MTR 튜먼 - 마온산선이 완전히 개통되었다. 신계 동서부 지역과 구룡 중부를 잇는 56km 구간은 홍콩에서 가장 긴 도시 철도 노선으로 27개 역을 운행하며 기존의 다양한 MTR 노선과 연결되는 6개의 환승역을 통해 이용 승객들은 목적지에 더 편리하게 도착하게 되었으며, 신설된 역사 주변의 커뮤니티도 새로운 발전 추진력을

얻을 예정이다. 한때 홍콩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랜드마크였던 곳으로 현재 성왕토이 역은 공사 당시에 출토된 송왕조 시대의 동전, 도자기, 건축 부재를 포함한 400여 점의 선택된 유물들을 고고학적인 발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운영 중인 역사 내에서 이러한 규모로 전시한 전례는 없었다.



새로 신설된 역사 중 하나인
성왕토이 역은 구룡시티에 있다.

역 공사 당시 출토된 도자기와 건축 부재 등
유물들은 성왕토이 역에 전시되었다

홍콩 정부는 2035년 홍콩공기청정계획을 발표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건강한 생활 · 저탄소 전환 · 세계일류'의 비전 및 2035년까지 홍콩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도전과 목표, 전략을 담은 2035년 홍콩공기청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원감싱 환경장관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5년 홍콩공기청정계획은 이전 초기계획의 성공을 이어갈 것이며, 해당 연도까지 홍콩을 주요 국제도시들과 동등한 대기질을 갖춘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고,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대기질 가이드라인의 공극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 홍콩공기청정계획은 '녹색 교통', '살기 좋은 환경', '포괄적인 배출 감소', '청정 에너지', '과학적 관리', '역내 협력' 등의 6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고 있다.

홍콩은 ‘202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세계 7위를 기록

홍콩은 최근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행한 ‘2021년 세계 경쟁력 연감(WCY)’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 평가체계의 4개 부문 중 홍콩의 ‘정부 효율성’은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하위 항목인 ‘기업관련법’도 최고 순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홍콩의 ‘국제무역’, ‘조세정책’, ‘금융’, ‘경영활동’도 연속으로 세계 상위 3위 안에 머물렀다.



홍콩의 새로운 명소, ‘카이탁 스카이 가든’



항공기 날개 및 동체와 유사한 형태의 전망데크.
땅 위에서 올려다봤을때 더 잘 느낄 수 있다.



홍콩의 새로운 명소, ‘카이탁 스카이 가든’

옛 카이탁공항 활주로에 자리 잡은 카이탁 스카이 가든이 지난 5월 21일 개장하였다. 약 1.4km 길이, 2헥타르 넓이의 하늘정원은 홍콩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으며, 항공을 주제로 디자인된 좌석과 산책로뿐만 아니라 항공기 동체와 유사한 형태의 전망데크로 구성되어 과거 카이탁공항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정원에는 80여 종의 나무와 관목이 심겨 있고, 정원 산책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사계절의 다른 색깔뿐만 아니라 홍콩 지역 식물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 밖에 다른 볼거리로는 빅토리아 하버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물놀이 구역, 문화 및 오락 활동을 위한 다목적 원형극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skygarden1331.hk



각 데크 끝에 적힌 숫자 13과 31은 각기 가리키는 방향과 이 다른 옛 활주로 번호를 의미한다.



정원의 피쳐 조명은 야간에 옛 활주로 분위기를 재현한다.



정원 산책로는 다른 나무와 관목이 심겨 있다.



물놀이 구역

SPOTLIGHT HONG KONG

**설치미술 작품, '리버 오브 라이트'**

빅토리아 하버에서 영감을 얻어 공중에 떠 있는 키네틱 조형물을 설치한 세계적인 예술가 패트릭 셰른(Patrick Shearn)의 설치미술 작품이 지난 6월 센트럴하버프론트 공공 공간에 전시되었다.

하버칠(HarbourChill) 개장

'도시의 뒤뜰'이라는 콘셉트로 하버칠이 홍콩 완차이 부두의 피어사이드지구 옆에 지난 5월 28일 오픈하였다. 다양한 디자인의 쉼터, 탁자, 의자, 그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약 1,800m² 크기의 부지는 과거 대규모 인프라 시설 공사를 위한 작업구역으로 사용되었다.

**홍콩 피크트램, 6세대 전차로 교체 준비**

홍콩에서 32년간 인기 절정을 달린 피크트램의 5세대 전차는 곧 퇴역하고 하반기부터 6세대 전차가 새롭게 들어올 예정이다. 지난 6월 28일부터 반년 정도 예상되는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운행 종료 전에 전차를 홍콩을 주제로 칠하였다. 1888년에 최초 운행을 시작한 피크트램은 세계에서 오래되고 유명한 강철 철도 중 하나로,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홍콩 현지 주민과 여행객들을 태워 날랐으며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로 발전하였다.